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중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신 구절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 : 11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구절을 강해함에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먼저 정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이 구절에서 양식은 무엇을 의미하나?
2. 일용할 양식으로 한정된 의미는 무엇인가?

먼저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의해야 이 구절에 담긴 더 깊은 의미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I. 먼저 양식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식의 의미는,

매일 매일 먹을 양식 뿐만 아니라, 매일 매일 사용할 양식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하면 식구들의 먹어야 할 양식을 얻기 위해선 우리의 건강도 필요하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선 쉬어야 할 집도 필요하며, 일할 사업터도 필요하며, 일하러 가기 위해선 승용차도 필요하며, 또 자녀들이 장래에 일용할 양식을 얻게 하기 위해선 좋은 교육, 학용품, 학교, 직업 선택 등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주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자녀 교육 문제 등 모든 것이 양식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성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예비하셨지만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 하시며, 아울러 그것을 얻기 위해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씀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 3 : 10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II. 일용할 양식에 대한 예수님의 의미

일용할 양식은 문자적으로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칼빈은 이 구절에 대하여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 다음과 같이 강해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평생 양식이 아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많은 소유를 쌓아 놓고 그 것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일상적인 매일 매일의 필요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소소한 삶의 문제에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에까지 자라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우리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보다는 재물을 의지하려 함으로, 마음이 요동하며 근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평생 먹을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한정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III. 일용할 양식으로 한정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우리는 물질에 있는 함정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물질 저축에 있는 함정 : 안식이 없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변전하는 자연계 안에 살고 있고,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죽음의 문제 앞에서 모두가 다 불안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평생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쌓아 놓고, 그 것을 의지하며 안심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재물이 많으면 더 든든한줄 알고 되도록이면 많은 재물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포도주와 곡식과 기름을 넘치도록 쌓아 놓아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life style 에 있는 함정은 불안이 지워지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평안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재물로서는 안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물질 저축에 있는 함정 : 만족이 없다

한 때는 미국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였던 록펠러에게 기자들이 질문하였습니다.

“얼마만큼의 재물을 가져야 사람들은 만족하며 살 수 있겠느냐?”

록펠러가 대답하기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가지면 만족하게 된다” 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평생에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하여 물질을 의지하려 하고, 그것에 만족하려 하려하는 함정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상적인 필요에서 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 일용할 양식으로 한정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쳐 줍니다. 물질적 풍요 가운데 낙을 누리며 즐거워 하는 것들이 선하고 아름답다 하면서,

전도서 5 : 18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전도서 5 : 19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 즐거움은 하나님으로 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 : 20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의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IV. 금전이 우리 삶에 차지하는 위치는 무엇인가?

성경은 부자가 되는 것을 죄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부자가 되는 것을 저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가난은 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난하여 위축된 마음이 죄라고 가르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다. 바울 사도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하였습니다. 또 돈을 많이 벌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자가 죄가 아니라면 가난도 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돈을 벌기 위해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게으른 것이 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죄를 짓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양 사람들의 사고 세계에는 동냥 배낭을 짊어지고 산 속으로 들어가 도를 닦는 것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교도로 있을 때의 이런 사고 방식은 기독교인이 되고 난 후에도 잠재적으로 깔려 있어,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 드릴 때는 힘이 넘쳐 나는데, 자기 직장이나 사업터에 가면, 마치 속세로 돌아 간 것 처럼 믿음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일날 교회에 돌아가 ‘씩어질 세상 일만 하다가 죄인 돌아 왔습니다’ 하고 회개할 생각을 하니 일하면서 힘이 안납니다. 죄스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사업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직장 일도 믿음으로 열심히 해야 합니다. 모두 하나님께 하듯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은 선합니다. 그런데 재물은 그 자체가 선하거나 신령한 것이 아니고, 선하고 신령하게 사용될 때 선하고 신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은 그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선과 악이 결정됩니다.

우리들 자신이 선한 사람이 되면 재물은 선하게 쓰여집니다. 우리 자신이 신령한 사람이 되면 재물은 신령하게 쓰여집니다.

이와 같이 재물은 우리가 지배해야 할 대상이지 재물이 우리를 지배해서는 안됩니다.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되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마 6:19-24 을 반드시 마음 판에 새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6 : 19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룩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마태복음 6 : 20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룩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 : 21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 : 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19-24 은 한마디로 하면 재물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V.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

신명기 8 장에는 하나님께서 재물을 앞에 놓고 그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8:18 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신명기 8 : 18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열조들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열조들에게 하신 언약은 무엇인가 찾아 보십시오.

창세기 12 : 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 : 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2 : 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의 언약을 따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민 생활을 하는 지금의 우리들과 같이, 남의 땅에서 유리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은금과 약대와 양과 노새가 풍성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부귀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의 후손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지금 미국의 경제를 누가 움직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갈라디아서 3:7-9 은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3 : 7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줄 알지어다

갈라디아서 3 : 8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갈라디아서 3 : 9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아브라함의 축복의 언약에 함께 참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영리함과 열심으로 재물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8:17-20 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 : 17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신명기 8 : 19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좃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녕히 멸망할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잠언 30:8-9 에서,

잠언 30 : 8 --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잠언 30 : 9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의 궁극적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 공급하십니다.

VI. 염려 근심은 천국의 Life style 이 아니다.

마태복음 6 : 28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마태복음 6 : 29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마태복음 6 : 30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판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가 무엇을 입을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의 필요를 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 염려 근심으로 부터 우리는 해방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 것을 강하게 명하십니다.

마태복음 6 : 31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마태복음 6 : 32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가 무엇을 입을가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의 삶의 스타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면서 모든 만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안식합니다.

믿음으로 온전한 안식이 이루어지면, 삶의 짐으로 부터 해방되어, 거기서 부터 새로운 힘이 옵니다. 마음이 마치 깃털처럼 가벼워져 일을 더 능률있게 잘하게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인하여 어떤 상황이라도 헤쳐 나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할 말이

마태복음 6 : 29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는 사람은 세상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에 도달합니다.

마태복음 6 : 25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나

마태복음 6 : 33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VI. 이렇게 물질 대신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사랑에게는 일상적 필요에 대한 염려로 부터 자유가 옵니다.

자기가 소유한 것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모든 필요를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족하며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비결을 배운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소유를 쌓아 놓아도 안심과 만족이 없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11-13 에서,

빌립보서 4 : 11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빌립보서 4 : 12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서 4 : 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합니다.

많은 고난을 겪고, 이리 저리로 쫓겨다니느라 결혼도 못했고, 자녀도 물론 없는 빈털터리가,

더군다나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감옥에도 여러번 들락거려야 했던 사람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선언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일상적 필요를 예비하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필요를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천에 처할 때 자족하고 기도하는 법과 풍부할 때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인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기에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4 : 18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자기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루 하루를 의지함과 함께, 전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 : 19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대로 너희 모든 쓸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 : 20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가운데 일상적으로 필요한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확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분도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만족함이 없이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일상적인 매일 매일의 필요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 어느 경우에서든지 자족하는 법을 하나님께 배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족함이 없이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는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록펠러의 대답처럼, 그런 사람은 일평생 만족을 느끼며 살 수 없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을 쌓아 놓고서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보다 아무 쌓아 놓 것이 없더라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는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자족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일용할 양식에서부터 시작하여 전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배우십시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하루 하루의 필요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움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재물을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되고, 나아가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우리의 삶속에 충만해야 합니다.

이 공부를 하신 분은 꼭 공부를 하신

주기도문강해 web-page 로 가셔서

공부를 하신 타이틀의

Like Button 을 눌러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선교에 도움이 됩니다.

- Like button 을 누르지 않으셨으면 다음 공부로 가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Eg. 만약 주기도문 강해 서론을 공부하셨으면

인터넷 브라우저의 좌측 상단으로 가셔서



를 누르시면 주기도문 강해 web-page 로 돌아 갑니다.

거기에서 주기도문 강해 서론을 설명한 내용 하단에

Like Button 이 있습니다.

모든 타이틀마다 다 Like Button 이 있습니다.